행동하는 믿음 XⅡ.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면, 열심히 살아야 할 필요가 있나?

1.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위'에 대한 문제이다. 권위는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다. 주어진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인정'이 권위이다. 그래서 진짜 '권위'는 포지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믿음의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로마서 10:9-10]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의 출처가 다른 곳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것이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마음으로는 믿지 않을 수 있다. 성경에서는 '마음의 동의가 없는 입술의 고백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마음으로 인정할 때 상대방을 향한 '권위'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때가 상대방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순간이다. 말씀이 권위가 있는 이유는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권위(Authority)'라는 단어에서 '작가, 저자(Author)'가 나오는 것이다. '작가'가 중요하다. 작가를 신뢰할 때 작가의 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1서 4: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다. 혼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 사랑, 이타적 사랑)이다. 희생적 사랑의 실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어떤 일이든 검증은 보이지 않은 것들을 실체화할 수 있기 때문) 그 검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질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시기에 사랑이시다.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증명되었다. 정리하면,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좋은 분, 신실하신 분, 정직과 공평,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며, 성경의 권위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다.

2. 정해진 하나님의 뜻?

성도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 우리 가정, 공동체, 국가, 시대와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말씀'이다.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명확히 나타나 있다. (연대기적으로 선명하다) 처음이 있으며, 마지막이 있다.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선명하다. 어차피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속에서 '사람 : 나, 공동체, 교회, 성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차피'라는 뜻이 중요하다.

➢ '어차피'의 뜻 :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또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국립국어원)

'어차피'라는 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갈 것이라면 당장 가거라' 라는 뜻이다. 긍정적 의미로는, 고민하지 말고 행동하고 움직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부정적 의미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나?'라는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

오늘 성도들의 질문도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어차피 정해져 있다면' 내가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어차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말이다. 믿음의 싸움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맞는 말이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선명하게 정해져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언약이다. 약속이다. 언약과 약속은 결과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지금 약속한 내용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 질문은 그래서 더 명확하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3. 사람이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성경의 대답 또한 명확하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역할'을 주셨다. 그것이 창세기 1:28절이다.

[창세기 1:27-28]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과 같다. 너무나 명확하다. 28절 '복을 위임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1) 복이다.

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는가? 존재적으로 우리는 복이다.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복의 개념은 '소유'로 정의한다. 소유해야 실체가 되며,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 '복'(바라크) :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존재로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복(福)이라 한다.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신 대로 충만한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세상에서 내가 만든 소유의 복과 개념이 다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에 대한 증거가 선악과 사건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날에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런데 그들의 육체의 생명은 바로 죽지 않았다. 육체의 생명은 죽지 않았으나, 성경은 그 순간을 죽은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복'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력이 없어진 것이다. 성경은 생명이 없는 사람을 '육체'로 말한다.

[창세기 6:3]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생령(영적인 존재)'이 되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가 복이다. 죄는 사람을 육체로 만들었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 없이 복을 만들라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너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너에게 선택권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너의 뜻이 아니다. 너의 뜻을 세워 네 이름을 알려라" 라는 거짓말이다.**

(2)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 비단 사람뿐만이 아닌,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하신 명령이다.

(3)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다.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은 어원으로 보면 '굴복하다. 인정하다, 완성하다' 라는 뜻이다. 즉, **모든 생명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복과 생명의 근원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사람을 통하여 창조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다. 엄청난 권위가 사람에게 위임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4. 동역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으로 될 것인데, 그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인정'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는다. 고아들은 정체성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나 행위에 대한 성과와 칭찬으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한다. 탕자와 탕자의 형을 향한 아버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넘어,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것이다.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그 필요를 사명으로 주신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손에 주셨다.